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재무상태 악화

### □ 정부 재무상태 악화 우려 커져

- 9월 30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배전회사 지분 매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는 최근 정부지출 증가와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해 정부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전회사의 지분 매입 대금으로 7억 달러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8월에 도입한 IMF의 대기성 차관 협약 사항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IMF는 배전회사 재국영화 결정이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IMF 협약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메히아 대통령에게 배전회사 지분 매입 계약 체결을 30일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미니카 정부는 9월 30일 서둘러 계약을 체결함.
-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배전회사 매입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계약내용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향후 12년간 매년 4,800만 달러를 지급(총 5억 7,600만 달러)하며, 2003년 12월 이전에 7,3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음.
  - 주식 재인수 대금 이외에도 정부는 배전회사의 부채 추정액 4억 6천만 달러를 떠안아야 함.

- 공공부채 증가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금인상이나 정부지출 축소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정부의 수출세 인상조치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고, 내년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지출 축소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금년 5월 국내 3위의 시중은행인 Banco Intercontinental(Baninter)의 파산과 이번 배전회사의 재국영화 결정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증가와 IMF 차관 지원 중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재무상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o 금년 8월 도미니카 공화국은 2년 만기 6억 1,800만 달러의 IMF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1억 2,000만 달러만 집행된 상태임.
- 한편, 2000년 8월 메히아 대통령 집권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의 공공부채 규모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o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0년 22%에서 현재는 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o 그러나 금년 초 6억 달러의 정부채 해외발행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추가로 2억 5,500만 달러의 정부채 해외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 향후 경제전망은 다소 개선

- 금년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는 환율불안과 국내 3위 은행인 Baninter의 파산으로 인한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3.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 도입 이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과 보세가공무역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 수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던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02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함.
  - o 2002년 초 15.11로 시작한 페소화 환율은 2002년 말에는 22.23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6월에는 한 때 40까지 상승하였으나, IMF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28-30 페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페소화 환율상승으로 인해 급등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전체로는 2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로 금년에는 GDP의 4.5%인 7억 달러의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책임연구원 김영석(☎3779-6653)  
E-mail : claudio@koreaexim.go.kr